

# 『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목」 기사의 해양생물과 『茲山魚譜』

김 동 전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교신저자)

백 종 진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주저자)

1481년(성종 12)에 편찬된 후 2차례의 수정을 거치고 다시 1530년(중종 25)에 增補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당시에 생산되고 있던 魚類와 貝類, 海藻類가 각 도별로 파악되어 있다. 내용상으로 어류는 약 51종, 패류는 약 16종, 해조류는 약 13종, 그리고 기타 수산물에 20여 종의 수록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 濟州牧 土産條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新增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동국여지승람』 편찬 당시 토산의 기록은 바로 대표적인 제주목 수산물과 제주에서 조정에 진상했던 공물에 대한 기록임을 유추케 한다. 결국 조선 초기 관찬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어류에 대한 기록은 통치적인 측면에서 어류를 지방 土産의 품목으로 파악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편찬의도는 '土産은 貢賦가 나오는 바이다'라는 서문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조선전기 어업이 대개 농업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영위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1814년(순조 14) 정약전에 의해 저술된 『茲山魚譜』는 實事求是를 연구방법으로 바다생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서적은 利用厚生을 목적으로 하여 철저한 관찰과 현지인과 옛 서적 등의 고증을 통해 저술된 조선시대 最古의 어류 백과사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료의 구성은 3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에는 비늘이 있는 鱗類를 20조목으로 나누어 72종을, 권2에는 비늘이 없는 無鱗類 19조목 43종과 게나 새우 같이 껍데기가 단단한 介類 12조목 66종을, 권3에는 기

타 바다물새나 해초 등의 雜類 4조목 45종을 조사 정리하였다.

조선의 건국으로 국교화된 조선의 성리학은 16세기 이후 人心道心論과 四端七情論, 人物性同異論 등 지극히 관념적인 학문으로 빠져버리고 '돌봐야 할 대상'인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향상을 위한 사대부로서 본분을 도외시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자산어보』는 당시 유행하던 사회적 풍조로서의 실학의 학풍을 계승하는 저술이면서, 또한 15세기 이래 육지중심의 경제관념으로 소외되던 바다가 19세기에 와서 실학자들에 의해 利用과 厚生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목」 기사의 해양생물과 『茲山魚譜』

1. 머리말
2.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해양생물
3. 『자산어보』의 체제와 성격
4.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 성종 조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지배 계층의 건국이념이 정립되는 시기로 각 분야에서의 편찬사업이 완료된다. 그 가운데 역사학·시문·지리학의 축적된 업적이 종합적으로 응축된 편찬서라 평가받는 『東國輿地勝覽』은 1481년(성종 12) 편찬된 후 2차례의 수정을 거치고 다시 1530년(중종 25)에 增補되기에 이른다. 한편, 1814년(순조 14)에 정약전에 의해 저술된 『茲山魚譜』는 ‘實事求是’를 학문 연구의 방법으로 견지하고, ‘實用之學’을 학문 연구의 대상과 내용으로 하며, ‘利用厚生’을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실학사상과 西學의 과학적 사상을 토대로 저술된 조선 시대 최고의 어류백과사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에 열거된 해양생물과 『자산어보』에 수록된 해양생물을 통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자산어보』의 체제와 성격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배경과 제주목 토산조의

해양생물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정약용의 생애와 『자산어보』 서문에 나타난 정약전의 사상, 체제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자산어보』의 성격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19세기 전후반에 걸쳐 편찬된 羅州牧 읍지 土産物과 19세기 초반 편찬된 『萬機要覽』 財用篇의 貢物과의 비교를 통해 『자산어보』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해양생물

### 1) 동국여지승람 편찬 배경

#### (1) 동국여지승람 편찬 과정과 체제

1478년(성종 9) 梁誠之의 『八道地理志』에 徐居正의 『東文選』 詩文을 첨가하는 형태의 『동국여지승람』 편찬의 명이 떨어지고 1481년(성종 12) 50권으로 엮어진 『東國輿地勝覽』은 1485년(성종 16) 다시 金宗直 등에게 『大明一統志』<sup>1)</sup>의 체제에 맞춰 수정되어 1487년(성종 18) 2월에야 55권으로 간행된다. 1499년(연산군 5)에는 任上洪 등에 의해 또다시 수정되었고, 최종적인 수정은 1530년(중종 25)이었다. 李荇 洪彦弼 등이 이전의 체제를 이어받아 내용을 보충하고, 그 대목을 新增이라고 구별해 두었으니 이것이 『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은 권1-2는 京都, 권3은 漢城, 권4-5는 開城, 권6-13은 경기도, 권14-20은 충청도, 권21-32는 경상도, 권33-40은 전라도, 권41-43은 황해도, 권44-47은 강원도,

1) 90권. 李賢 등이 임금의 명을 받들어 편찬하였으며 1461년(天順 5)에 완성하였다. 『大元一統志』를 본떠서 명나라의 중국 전역과 朝貢國의 지리를 기술한 總志이며, 각종 지도를 게재한 다음, 풍속·산천 등 20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권48-50은 함경도, 권51-55는 평안도로 되어있다. 책머리에 그 도의 全圖를 싣고 이어 沿革 風俗 廟社 陵寢 宮闕 官府 學校 土產 孝子 烈女 城郭 山川 樓亭 寺社 驛院 橋梁 名賢의 사적, 시인의 題詠 등을 실었다. 이어서 李荇 등의 進箋文, 서거정 등의 서문이 있으며, 책 끝에 김종직 등의 발문이 있다.

## (2) 동국여지승람 편찬배경

梁誠之에 의해 『팔도지리지』가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종이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게 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sup>2)</sup> 첫째, 왕권의 권위 확보와 신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세조가 이루어 놓은 왕권의 우위를 지키려던 성종은 지리지 편찬을 통해 자신과 왕권의 우위를 강조하려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조선 개창을 부정하면서 초야로 숨었던 온건파 사대부 김종직 등의 사림계열의 등장은 조선 건국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유교적 통치이념을 현실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체제에 있어서 인물편을 강조하여 名宦을 통하여 군신관계를, 烈女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孝子를 통해서 부자관계를 강조하여 三綱의 도리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던 것이다.

셋째, 조선 왕조 초기 이룩된 문화 발전을 완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성종 조에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지배 계층의 건국이념이 정립되는 시기로 각 분야에서의 편찬사업이 완료된다. 성종 9년(1478) 『동문선』, 성종 15년(1484) 『동국통감』, 성종 16년(1485)에 『경국대전』 등이 완성되는데, 성종 12년(1481)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은 역사학·시문·지리학의 축적된 업적이 종합적으로 응축된 편찬서라고 할 수 있다.

2) 아래의 항목은 徐仁源, 「『東國輿地勝覽』에 반영된 자주의식 -訥齋 梁誠之의 思想과 관련하여-, 『역사민속학』 29, 한국역사민속학회, 2009, 48-50쪽을 참고하였다.

넷째, 『대명일통지』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지리지의 필요성에 의하여 『世宗實錄』 地理志가 편찬되었으나, 선진 중국문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체제의 지리지를 편찬하려 한 것이 『동국여지승람』이다. 그러나 체제와 형식은 중국의 것을 모방하기는 하였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대등한 입장이라는 자부심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정립하는 입장이 강하였다.

다섯째, 『세종실록』지리지에 비하여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성종 조는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조선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완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국여지승람』에는 국가적 현실 파악에 가장 중요시 되는 戶口·田結·生産物·軍丁의 기록이 빠진 반면, 名賢·旌表門閭·陵墓·樓臺·題詠·僧寺 등의 편목과 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성종 朝에 와서 새로운 왕조의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臣權에 대한 王權의 優位의 강조, 현실적 문제보다 유교적 문화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제주목 토산조에 기록된 해양생물이 貢物 위주의 기록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한다.

## 2)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 해양생물의 종류와 성격

### (1) 제주목 해양생물의 종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당시 생산되고 있던 어류와 패류, 해조류가 각 도별로 파악되어 있는데, 어류는 약 51종, 패류는 약 16종, 해조류는 약 13종, 그리고 기타 수산물 20여 종이 수록되어 있다.<sup>3)</sup> 이 중 제주목 토산조에 나오는 해양생물은 모두 20종

3) 허태용, 「丁若鏞의 茲山魚譜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제4호, 한국인물사연구회, 2005, 232쪽.

에 관련 토산물은 22종류로 <표1>의 '신증동국여지승람' 항목과 같다.

<표 1>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이원진 탐라지의 제주목 해양생물<sup>4)</sup>

신증동국여지승람		이원진 탐라지	
해양생물(20)	관련토산물(22)	관련 공헌물(14)	
鱗類 (6)	은어	銀口魚	×
	옥돔	玉頭魚	×
	상어	鯊魚	×
	갈치	刀魚	×
	고등어	古刀魚	×
	멸치	行魚	×
無鱗類 (2)	문어	文魚	×
	오징어	烏賊魚	烏賊魚
介類 (8)	바다거북	玳瑁	玳瑁甲
	게	蟹	×
	전복	鮑・石決明	槌鮑・條鮑・引鮑・石決明・ 大全鮑・螺鈿鮑甲
	소라	螺	×
	앵무조개	鸚鵡螺	×
	조개	貝(자개)・蠔珠	×
	황합	黃蛤	×
	굴	×	大灰鮑・中灰鮑・小灰鮑
雜類 (4)	미역	藪・無灰木	藪・早藪・藪耳
	우뭇가사리	牛毛	×
	김	海衣	×
	해달	海獺	×

※ 표의 ×는 해당 책자에 기록되지 않은 항목임.

## (2) 제주목 해양생물의 성격

이처럼 『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조에 기록된 해양생물이 적은 이유는 관찬지리지로서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중앙에서 기획 편찬된 지리지로, 제주에서 올라오는 貢物의 파악을 주목적으로

4) 鱗類・無鱗類・介類・雜類의 구분은 『茲山魚譜』의 체제를 따라 분류하여, 뒤의 『자산어보』체제와 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

하기 때문이다. 이는 17C 중반에 편찬된 이원진 『耽羅志』<sup>5)</sup> 제주목 공헌조의 항목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된다. <표1>에서 보여지듯 이원진 목사 당시의 공물이 굴을 제외하고 모두 동국여지승람의 토산물조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 토산조에는 新增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동국여지승람』 편찬 당시 토산의 기록이 대표적인 제주목 수산물과 제주에서 조정에 진상했던 공물에 대한 기록임을 유추케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이후 1세기가 경과하는 사이 진상되는 공물의 加減이 있었지만 신증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제주의 대표적 토산물로 앵무조개나 진주처럼 이전에 공물로 진상했던 공물<sup>6)</sup>이 여전히 토산조에 기록되고 있음은 『동국여지승람』 토산조가 공물의 파악을 위한 그 지방의 대표적 토산물의 기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조선 초기 국가에 의해 편찬된 관찬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어류에 대한 기록은 통치적인 측면에서 어류를 지방 土貢의 품목으로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sup>7)</sup>이며, 이러한 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의도는 서문의 ‘土産은 貢賦가 나오는 바이다’<sup>8)</sup>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그 취지가 잘 드러나 있다고 하겠다. 곧,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있어서는 제주지방에서 공물로 바쳤거나 바치고 있는 토산의 수산물을 제외하면 그 이상의 자세한 정보는 수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이다.

5) 1653년(효종 4) 제주목사 이원진이 편찬한 제주도의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邑誌이다. 1책의 목판으로 高弘進의 監校로 완성되었다. 이원진 탐라지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체계를 따라 詩文을 첨가하였다.

6) 조선왕조실록 성종 11년 경자(1480)에 僉知中樞府事 高台弼이 眞珠盃와 鸚鵡盃의 폐단을 지적하며 進上을 減해 줄 것을 청하는 기록이 있다. 이후 이원진의 『탐라지』 공헌조에는 토산물 품목에서 빠져있다.

7) 朴九秉, 『韓國水産業史』, 太和出版社, 1966, 81-83쪽. 허태용, 앞의 책, 232쪽에서 재인용.

8) 『新增東國輿地勝覽』卷首, 東國輿地勝覽序, “土産者 貢賦之所自出”



한편, 『동국여지승람』에는 육지 토산이 50여 종이 수록되어 있는데 해양생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전기의 어업이 대개 농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생계 보충책으로 영위되었다<sup>9)</sup>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3. 『자산어보』의 체제와 성격

#### 1) 정약전의 생애

丁若銓의 본관은 羅州 혹은 押海라고도 한다. 자는 天全, 호는 巽菴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문관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하였지만 병조참의를 지낸 5대조 丁時潤을 끝으로 벼슬길에 나가지 못했다. 이때부터 광주에서 살기 시작하였는데 그의 부친인 丁載遠이 호조좌랑이 됨으로써 다시 서울에서 살게 되었다. 아버지 정재원은 부인이 2명이었는데 정약전은 둘째 부인인 윤씨의 3남 1녀 중 큰 아들로 두 동생은 若鏞(1762~1836)과 若鍾(1760~1801)이고 누이는 李承薰의 아내가 되었다.<sup>10)</sup>

정약용이 쓴 先仲氏墓誌銘, 權哲身墓誌銘 등을 참고하여 정약전의 생애를 연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정약전 연표

나이	연도	주요 행적	주요 사건
1세	1758년(영조 34)	진주목사를 역임한 정재원과 공재 윤두서의 손녀 해남 윤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다.	

9) 허태용, 앞의 책, 236-237쪽.

10) 허태용, 앞의 책, 227쪽.

19세	1776년(영조 52)	부친을 따라 상경하다. 李瀆의 학문을 이어받은 權哲身의 문하에서 수학하다.	
22세	1779년(정조 3)	天真庵, 走魚寺의 강학회에 참석하여 權哲身, 金源星, 權相學, 李龍億, 李槩 등과 강학하다.	
26세	1783년(정조 7)	進士가 되다.	
27세	1784년(정조 8)	이벽의 권유로 『天主實義』와 『七克』을 탐독하여 천주교에 깊이 빠지다.	
30세	1787년(정조 11)	부친의 강압으로 천주교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다.	洋會事件 <sup>11)</sup>
33세	1790년(정조 14)	증광별시에 급제하고 바로 承文院副正字로 임명되다.	元子(純祖) 誕辰
34세	1791년(정조 15)	천주교와의 인연을 완전히 단절하다.	珍山事件 <sup>12)</sup> 으 로 천주교 엄금
38세	1795년(정조 19)	睦萬中の 사주를 받은 朴長高의 공격을 받다. <sup>13)</sup>	중국인 신부 周文謨가 체포됨
40세	1797년(정조 21)	成均館典籍을 거쳐서 兵曹佐郎이 되다.	
41세	1798년(정조 22)	왕명으로 『嶺南人物考』편찬에 참여하다.	
43세	1800년		正祖 崩御
44세	1801년(순조 1) 2월 28일	薪智島에 유배되다.	辛酉邪獄 <sup>14)</sup>
	11월 2일	흑산도로 유배지가 변경되다.	黃嗣永 帛書事件 <sup>15)</sup>
50세	1807년(순조 7)	沙村書室을 짓다. <sup>16)</sup>	
		아들 學樵가 요절하다.	
56세	1813년(순조 13)	內黑山 牛耳堡로 유배지 처소를 옮기다.	
57세	1814년(순조 14)	『茲山魚譜』를 완성하다.	
59세	1816년(순조 16) 6월 6일	歿하다.	

11) 허태용, 앞의 책, 228쪽. 이 사건은 김석태의 집에서 이승훈, 姜履元, 정약용이 함께 천주교 서적을 공부하다가 李基慶에게 발각되어 洪樂

위의 연표를 통해 정약전의 생애에 있어 정신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는 星湖 李瀾(1681~1763)과 그의 학문을 계승한 權哲身(1736~1801)과 李樂(1754~1785)<sup>17)</sup>을 꼽을 수 있다.

- 안이 직접 정조에게 다시금 천주교를 금하기를 청한 사건으로 이 사건 이후 정약전이 背敎한 것으로 보인다.
- 12) 정두희, 「천주교 신앙과 유배의 삶, 다산의 형 정약전」, 『역사비평』 11호, 역사비평사, 1990, 306-307쪽. 1791년 5월 북경교구장 Gouvea 주교가 교리에 어긋난다 하여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같은 해 8월 진산에 사는 尹持忠과 그의 외사촌 權尙然이 교회의 금지령에 부응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고 神主를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나 조정에서 이들을 사형에 처하고 천주교를 엄금하였다.
  - 13) 정두희, 앞의 책, 307쪽. 策問이 五行에 대한 것이었는데 정약전의 對策이 1등으로 뽑혔었다. 1795년(을묘년) 가을 睦萬中의 사주를 받은 朴長高이 상소하여 “丁若鉉의 對策) 오로지 西說을 주장하여 五行을 四行으로 만들었는데도 가환이 이를 1등으로 뽑았으니 이는 은밀히 저의 門徒를 구제한 것입니다.”라며 李家煥을 공격하였다. 이에 정조가 답안을 친히 검토하고는 정약전을 변호하였다. 이는 정약전 등 천주교 관계를 익히 알고 있었던 다산의 반대파들이 주문모 사건과 연결 지은 것으로, 이로 인해 이가환 정약용 등이 좌천되었다.
  - 14) 1801년(순조 1) 1월 정순왕후는 사학(邪學 : 천주교)을 엄금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유는 천주교가 혈연과 군신의 관계를 부정하여 인륜을 무너뜨림으로써 백성들을 오랑캐나 금수의 상태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천주교에 관여했던 남인 인사와 당시 교회를 이끌고 있던 인물들이 대거 체포되어, 그해 2월에 丁若鍾·李承薰 등이 처형당하고 權哲身·李家煥은 옥사했으며, 周文謨 신부도 효수되었다. 이 사건은 신자 약 100명이 처형되고 400여 명이 유배되었다.
  - 15) 辛酉邪獄 때 丁若鉉의 사위이며 천주교도인 黃嗣永이 조선 교회의 박해받는 실정과 교회의 재건축을 호소하는 내용의 帛書를 冬至使 일행에 끼어서 북경의 主教에게 전달하다 발각되어 발각된 사건이다. 백서에는 우리나라를 청나라에 소속시켜 청나라의 감독을 받게 할 것과 수백 척의 배와 서양군대를 보내어 선교를 돕게 하라는 글 등이 쓰여 있었다.
  - 16) 『與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 제13권, 沙村書室記 “余兄巽菴先生 謫居黑山之七年 有童子五六人 從而學書史 既而構艸屋數間 榜之曰沙村書室 詔余爲之記 遂設鸞箔喻以告之”
  - 17) 이벽의 누이가 정약전의 형인 丁若鉉의 부인이다. 곧, 정약전과 이벽은 사돈지간이다. 다산의 「先仲氏墓誌銘」에 의하면 1784년 그의 누이의 기제사 때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에게 천지교리를 설하고 이어서 「天主實義」와 「七克」 등의 천주교 관련 서적을 보여주었다.

정약전은 30대가 넘어 정계에 발을 들여 놓기 이전에는 ‘大科는 나의 뜻이 아니다.’<sup>18)</sup>라는 입장을 취하며 天主教를 비롯한 西學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었다. 이러한 영향에는 이익과 권철신의 經世致用的 학풍이 배경이 되었을 것이며, 西學書인 『幾何原本』과 天主教의 敎理를 전해준 이벽의 영향<sup>19)</sup>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배지에서 강진의 정약용에게 보낸 「松政私議」<sup>20)</sup>에 보이는 현 조정의 안일한 松政을 비판하는 경세치용에 입각한 비판 태도나 자산어보에서 보이는 名物度數之學<sup>21)</sup>에 기초한 박물학적 편찬방식은 분명 17세기를 거쳐 정약전이 활동했던 18~19세기에 팽배하던 실학사상<sup>22)</sup>과 맥을 같이 한다.

정약전의 집안은 대표적 남인계열의 집안이었다. 정조는 즉위 이후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 남인을 등용하였는데, 33세에 정약전이 들면 마음을 바꾸고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임금을 섬길 길이 없다.”<sup>23)</sup>라며 과거를 보고 조정에 진출한 것도 이러한 조정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동생 정약용과 더불어 정약전을 비호하던 정조가 갑자기 붕어하자 어린 순조를 대신하여 貞純王后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노론 벽과 계열의 인물

- 
- 18) 『與猶堂全書』 第1集 『詩文集』 第15卷 墓誌銘 「先仲氏墓誌銘」 “癸卯秋以經義爲進士 不屑爲舉業曰 大科非吾志也”
- 19) 『與猶堂全書』, 앞의 묘지명. “嘗從李檠游 聞曆數之學 究幾何原本 剖其精奧 遂聞新敎之說 欣然以悅”
- 20) 정약용에게 보낸 편지형식의 논설.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한 松禁政策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21) 정명현,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고전을 읽는다』 4, 휴머니스트, 2006, 308쪽. 명물도수지학에서는 사물의 명칭, 형태, 성질 등을 파악하여 같은 종류를 모으고 비슷한 무리별로 나누는 연구를 한다. 박물학적 관심으로 만물의 성질과 생태, 쓰임새, 가치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겠다.
- 22) 17세기에 들어오면서 李睟光(1563~1628)의 『芝峯遺說』를 비롯하여 18~19세기에는 정약전과 비슷한 시기에는 서유구(1764~1845)의 『林園經濟志』나 金鑣(1766~1822)의 『牛海異魚譜』 등의 저술이 실학자들에게 의해 꾸준히 편찬되어진다.
- 23) 『與猶堂全書』, 앞의 묘지명. “公曰不登科無以事君”

이 일거에 정국을 장악하게 되고 정약전을 비롯한 남인 계열의 인물들은 천주교와의 연루가 문제가 되어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정약전 또한 1801년 일어난 辛酉邪獄으로 薪智島로 유배를 가게 되고 이듬해에는 다시 黑山島로 옮겨져서 결국 16년간의 유배생활 끝에 丙黑山 牛耳堡에서 5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부인은 풍산 김씨로 敍九의 딸이며 아들 학초와 딸 한 명이 있고 흑산도에서 얻은 첩에게서 學蘇, 學枚가 있다.

다산에 의하면, 정약전은 撰述에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著書가 많지 않고 『論語難』 2권, 『易柬』 1권, 『자산어보』 2권, 『松政私議』 1권, 그리고 유배지의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문순득이란 사람이 표류하여 오끼나와 필리핀 등지를 떠돌다 돌아온 경험담을 정리하여 『漂海始末』이란 책을 엮어냈다. 모두 유배생활에서 지은 것이다.

## 2) 자산어보 서문에 나타난 정약전의 사상

정약전은 자산어보 서문의 서두에 다음과 같이 저술동기를 밝히고 있다.

“茲山の 海中魚族은 매우 풍부하지만, 그 이름이 알려진 것은 적다. 마땅히 박물학자들은 살펴보아야 할 곳이다. 나는 섬사람들을 널리 만나보았다. 그 목적은 魚譜를 만들고 싶어서였다. …이리하여 조사 연구한 자료를 차례로 엮었다. 이것을 茲山魚譜라 이름 지었다. 그 부수적인 것으로는 바닷물새와 海菜에 이르기까지 확장시켜, 이것이 훗날 사람들의 참고자료가 되게 하였다.”

여기에서 정약전은 자신이 박물학자임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박물학적 저술 집필은 실학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다. 16세기 조선조 실학의 鼻祖라 일컬어지는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 시작되어 성호 이익의 『磻溪隱錄』,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등은 모두 명물도수지학에 근거한 현대적 의미의 백과사전에 해당한다. 『자산어보』는 개인의 好嗜에 의한 저술이기보다는 분명 17~18세기에 대두된 經世致用과 利用厚生의 實學思想에 입각한 시대적 흐름에 의해 저술된 현대적 의미의 어류백과사전에 해당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약전은 어족뿐만 아니라 바다물새와 海菜에 이르기까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일일이 조사 연구하여 그 생김새와 크기, 쓰임새 등을 세밀하게 기록하였고, 궁극적으로 자산어보가 일반 백성들의 利用과 厚生에 기여하기를 목적으로 하였다.

“후세의 君子가 이를 수정하고 보완한다면 이 책은 병을 치료하고[治病]·쓰임을 이롭게 하며[利用]·재산을 관리하여 이익을 도모하는[理財]<sup>24)</sup> 데 있어 여러 전문가가 진실로 의뢰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한 詩人들이 (自然이나 人事에) 널리 비유함이 미치지 못하는 바를 도와줌이 이와 같을 것이다.”<sup>25)</sup>

주자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만물의 이치를 궁구해 내기 위해 구체적인 사물을 궁리하여 우주 만물을 主宰하는 天理를 밝혀내는 格物致知가 주된 수양방법이 되어왔다. ‘사물에 나아가 앎을 지극히 한다.’는 격물치지의 의미는 곧, 務實力行을 강조하며 實事求是의 학문을 주장하였던 조선후기 실학의 학문방법론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sup>26)</sup> 정약전의 『자산어보』의 저술태도 또한 섬의

24) 필사본에 따라 理則이라 쓰인 곳도 있다. 본고에서는 허태용의 앞의 책 239쪽의 번역문의 理財를 따랐다.

25) 『茲山魚譜』序 “後之君子 因是而修潤之 則是書也 於治病利用理財 數家 固應有資 而亦以補 詩人博依之所不及云爾”

26) 고영진, 「성리학과 실학」,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2009, 504쪽에 의하면 실학이 대체로 18세기 깊어진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회현실에 관심을 두는 근대지향적이고 사상적인 경향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필자는 성리학과 실학은 근본적으로 학문의 궁극적 목적이나 방법면에 있어서 단절성보다는 연관성에 주목하여 이 둘이 儒學이라는 같은 뿌리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생물인 어족[物]에 나아가[格] 그 생김새뿐만 아니라 治病 등의 효용 등을 알아내는[致知] 실천적 학문의 전형인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건국으로 유교가 국교화 됨으로써 주자학의 격물치지의 수양방법론은 계속 유효하였지만 16세기 이후 조선 성리학은 人心道心論과 四端七情論, 人物性同異論 등 지극히 관념적인 학문으로 빠져버리고 격물치지를 위한 실천적인 성격은 망각되어버렸다. 실학자의 관점에서 백성은 돌봐야 할 대상이며, 관리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sup>27)</sup>이지만 조선후기로 갈수록 사대부로서 실행해야 할 본분을 도외시 하였다. 따라서 서문의 끝머리에 언급된 治病과 利用, 理財는 통치자에게 소외된 일반 백성들을 위한 연민과 부국강병의 실질적인 방법을 도외시하는 조정을 바라보는 당대 지식인 憂國의 發露이다. 이것이 『자산어보』 저술의 궁극적 목적이고, 시인의 활용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효과일 뿐이다. 다시 말해 시인들에게까지 활용되기를 바란다는 말에는 당시 관념화된 성리학에 격물치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념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 그 대상이 있으며, 그 대상은 가난에 허덕이는 일반 백성들이고,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일상에 편리하게 활용[利用]되어야 하며 정치행위의 실질적 목적 또한 厚生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자산어보 체제와 성격

#### (1) 자산어보 체제

자산어보는 3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에는 비늘이 있는 鱗類를 20조목으로 나누어 72종을, 권2에는 비늘이 없는 無鱗類 19조목 43종과 게나 새우 같이 껍데기가 단단한 介類 12조목 66

27)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第十卷, 文集, 原, 原牧 “牧爲民有乎 民爲牧生乎 民出粟米麻絲 以事其牧 民出輿馬騶從 以送迎其牧 民竭其膏血津髓 以肥其牧 民爲牧生乎 曰否否 牧爲民有也”

종을, 권3에는 기타 바다물새나 해초 등의 雜類 4조목 45종을 조사 정리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자산어보 해양생물 편목

類	目	種
鱗類 (72)	석수어(石首魚)(3)	애우치[大鯪] 민어[鮓魚] 조기[躑水魚]
	숭어(鰻魚)(2)	숭어[鰻魚] 가숭어[假鰻魚]
	농어(鱸魚)(1)	농어[鱸魚]
	강항어(強項魚)(6)	도미[強項魚] 강성돔[黑魚] 흑돔[瘤魚] 닥도미[骨道魚] 북도어[北道魚] 강성어[赤魚]
	준치(鱒魚)(1)	준치[鱒魚]
	고등어(碧紋魚)(3)	고등어[碧紋魚] 가고등어[假碧魚] 배악어[海碧魚]
	청어(靑魚)(4)	청어[靑魚] 목을총암[食鯖] 우동필[假鯖] 관목청[貫目鯖]
	상어(鯊魚)(18)	기름상어[膏鯊] 참상어[眞鯊] 계상어[蟹鯊] 죽상어[竹鯊] 비근상어[癡鯊] 왜상어[矮鯊] 병치상어[駢齒鯊] 줄상어[鐵刺鯊] 모돌상어[號鯊] 저자상어[鏹鯊] 귀상어[鱧閣鯊] 사치상어[四齒鯊] 은상어[銀鯊] 환도상어[刀尾鯊] 극치상어[戟齒鯊] 철갑상어[鐵甲鯊] 내안상어[箕尾鯊] 총절입[鎗鱗鯊]
	금치귀(黔魚)(6)	금치귀[黔魚] 불낙어[薄脣魚] 적박순어[赤薄脣魚] 북제어[賴魚] 아구어[釣絲魚] 손치어[螿魚]
	넙치가자미(鰈魚)(8)	넙치가자미[鰈魚] 가자미[小鰈] 헤대어[長鰈] 돌장어[檀鰈] 해풍대[瘦鰈] 서대[牛舌鰈] 투주매[金尾鰈] 박대어[薄鰈]
	망치어(小口魚)(1)	망치어[小口魚]
	옹어(魴魚)(2)	옹어[魴魚] 밴댕이[海魴魚]
	망어(鱗魚)(2)	망어[鱗魚] 대사어[黃魚]
	송대어(靑翼魚)(2)	송대어[靑翼魚] 장대어[灰翼魚]
	날치(飛魚)(1)	날치[飛魚]
	노래미(耳魚)(2)	노래미[耳魚] 쥐노래미[鼠魚]
	전어(箭魚)(1)	전어[箭魚]
	병어(扁魚)(1)	병어[扁魚]



	멸치[鰈魚](5)	멸치[鰈魚] 정어리[大鰈] 반도멸[短鰈]공멸[酥鼻鰈] 말독멸[杜鰈]
	대두어[大頭魚](3)	대두어[大頭魚] 장동어[巨目魚] 룽가리[整刺魚]
無 鱗 類 (43)	가오리[鱈魚](8)	가오리[鱈魚] 발굽어[小鱈] 간자[瘦鱈] 청가오리[靑鱈] 묵가오리[墨鱈] 노랑가오리[黃鱈] 나가오리[螺鱈] 매가오리[鷹鱈]
	해만리[海鰻鱺](4)	장어[海鰻鱺] 봉장어[海大鱺] 갯장어[大牙鱺] 대광어[海細鱺]
	해점어[海鮎魚](4)	바다메기[海鮎魚] 홍달어[紅鮎] 포도메기[葡萄鮎] 글망어[長鮎]
	복전어[鮓魚](7)	검복[黔鮓] 까치복[鶻鮓] 밀복[滑鮓] 까칠복[澁鮓] 줄복[小鮓] 가시복[鱗鮓] 흰복[白鮓]
	오징어[烏賊魚](2)	오징어[烏賊魚] 고록어[鱈魚]
	문어[章魚](3)	문어[章魚] 낙지[石路] 죽금어[蹲魚]
	해돈어[海豚魚](1)	상광어[海豚魚]
	인어[人魚](1)	인어[人魚]
	사방어[四方魚](1)	사방어[四方魚]
	화절육[牛魚](1)	화절육[牛魚]
	뱅어[鱠殘魚](1)	뱅어[鱠殘魚]
	공치[鱈魚](3)	공치[鱈魚] 갈치[裙帶魚] 한새치[鶴精魚]
	천족담[千足蟻](1)	천족담[千足蟻]
	해팔어[漁蛇](1)	해팔어[漁蛇]
	고래[鯨魚](1)	고래[鯨魚]
	해하[海蝦](1)	대하[人蝦]
	해삼[海參](1)	해삼[海參]
	굴명충[屈明蟲](1)	굴명충[屈明蟲]
	음충[淫蟲](1)	음충[淫蟲]
	介 類 (66)	거북[海龜](1)
게[蟹](17)		벌떡게[舞蟹] 살게[矢蟹] 농게[籠蟹] 돌장게[蟛蜞] 삼게[小蟹] 노랑게[黃小蟹] 흰게[白蟹] 화랑게[花郎蟹] 몸살게[蛛腹蟹] 참게[川蟹] 뱀게[蛇蟹] 콩게[豆蟹] 꽃게[花蟹] 밤게[栗蟹] 동게[鼓蟹] 가제[石蟹] 흰돌게[白石蟹]

	전복[鮑魚](6)	전복[鮑魚] 비말[黑笠鮑] 흰비말[白笠鮑] 가마귀비말[烏笠鮑] 변립복[匾笠鮑] 대립복[大笠鮑]
	조개[蛤](10)	대롱조개[纒文蛤] 누비조개[瓜皮蛤] 반지락[布紋蛤] 공작조개[孔雀蛤] 나박조개[細蛤] 주걱조개[杓蛤] 흑주걱조개[黑杓蛤] 새조개[雀蛤] 게배조개[蟹腹蛤] 함박조개[飽子蛤]
	맛[蚌](2)	맛[蚌] [雀蚌]
	[蚌](1)	[蚌]
	홍합[淡菜](4)	홍합[淡菜] 소담채[小淡菜] 적담채[赤淡菜] 키홍합[箕蜆]
	굴[蠔](8)	굴[牡蠣] 잔굴[小蠔] 홍굴[紅蠔] 석화[石華] 굴통굴[桶蠔] 보살굴[五峯蠔] 홍말주알[石肛蠔] 석사[石蛇]
	고동[螺](13)	소라[海螺] 구죽[劍城蠃] 다사리[小劍螺] 양다사리[兩尖螺] 평봉다사리[平峯螺] 다래고동[牛角螺] 삼고동[巖布螺] 명주고동[明紬螺] 햇고동[炬螺] 감상고동[白章螺] 딱지고동[鐵戶螺] 은행고동[杏核螺] 뾰족고동[銳峯螺]
	밤송이조개[栗毬蛤](2)	밤송이조개[栗毬蛤] 승틀조개[僧栗毬]
	구름범[龜背蟲](1)	구름범[龜背蟲]
	개부전[楓葉魚](1)	개부전[楓葉魚]
雜類 (45)	해충[海蟲](4)	해조[海蚤] 개강귀[蟬頭蟲] 해인[海明] 소[海蟻]
	바닷물새[海禽](5)	오지[鷗] 수조[水鵬] 해구[海鴈] 존지락[鵲燕] 조개새[蛤雀]
	해수[海獸](1)	물개[膾膈獸]
	해초[海草](35)	해조[海藻] 미역[海帶] 먹아채비[假海帶] 흑대초[黑帶草] 적발초[赤髮草] 지종[地驛] 토의채[土衣菜] 김[海苔] 해추태[海秋苔] 맥태[麥苔] 상사태[常思苔] 갱태[羹苔] 매산태[莓山苔] 신경태[信經苔] 적태[赤苔] 저태[渚苔] 감태[甘苔] 자채[紫菜] 엽자채[葉紫菜] 가자채[假紫菜] 세자채[細紫菜] 조자채[早紫菜] 취자채[脆紫菜] 석기생[石寄生] 종가사리[驢加菜] 섬이가사리[蟾加菜] 세발초[鳥足草] 우모초[海凍草] 나출우모초[蔓毛草] 가우모초[假海凍草] 진질[綠條帶] 폭진질[短綠帶] 고진질[石條帶] 청각채[靑角菜] 가산호[假珊瑚]

이러한 체계적인 분류는 明의 李時珍(1518~1593)이 저술한 『본초강목』을 계승한 것이지만, 잡류에서 바다물새나 海草 등 당시 물고기로 분류되지 않아 거의 언급되지 않던 해양 동식물까지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종합적인 해양생물 저술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정약전의 독창성이 드러난다.<sup>28)</sup>

한편, 자산어보에는 ‘田靑 이 살펴보니[田靑案]’라는 형태의 구절이 총 63곳<sup>29)</sup>, ‘원문에 빠진 것을 지금 보충한다[原篇缺今補之]’, ‘지금 보충한다[今補之]’, 이상은 모두 지금 보충한 것이다[已上俱今補]’라는 표현이 총 12곳에서 보인다. 기존의 『자산어보』에 기록된 226종 중 75종에 대해서 이후 보충설명이 추가로 가해졌다는 것이다.

靑魚 : 길이는 한 자 남짓하면 몸이 좁고 빛깔이 푸르다. … ○ 田靑이 살펴보니 靑魚는 鯖魚로도 통한다. 『본초강목』에 청어는 강호 사이에 태어나 머릿속의 침골의 모양이 호박과 같고 잡는데 때를 가리지 않는다고 써어져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의 청어가 아니다. 그 빛깔이 푸른 점에서 우선 그런 이름을 붙여둔 것이다.<sup>30)</sup>

貫目鯖 : 모양은 靑魚와 같고, 두 눈이 뚫려 막히지 않았다. 맛은 청어보다 좋다. 이것을 말려서 포를 만들면 맛이 더욱 좋다. 그런 까닭에 청어를 말려 만든 포를 모두 관목이라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영남의 바다에서 나는 것이 가장 드물고 귀하다. -원문에 빠져 있어 지금 보충한다.<sup>31)</sup>

28) 허태용, 앞의 책, 243쪽.

29) 鄭文基 번역의 저본인 『茲山魚譜』의 원문을 검색하여 又案을 포함한 결과이다.

30) 『茲山魚譜』 卷一 鱗類, 靑魚. “靑魚 長尺餘 體狹 色靑 … ○田靑案 靑魚亦作鯖魚 本草綱目 靑魚生江湖間 頭中枕骨狀 如琥珀 取無時 則非今之靑魚也 今以其色靑 故假以名之也”

31) 『茲山魚譜』 卷一 鱗類, 貫目鯖. “貫目鯖 狀如靑魚 兩目貫通無礙 味優於靑魚 腊之尤美 故凡靑魚之腊皆稱貫目 非其實也 產於嶺南海中 最稀貴 原篇缺今補之”

첫 번째 예문에서 '田靑이 살펴보니' 이하는 『자산어보』와 『본초강목』의 청어가 同名異物임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예문은 본래 자산어보 원문에 빠져있는 어종인 관목청을 첨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 경우는 전적으로 田靑이라는 사람이 정리하여 기록한 내용이다. 田靑은 곧 李田靑을 이른다.

이청은 정약용의 강진 유배시절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스승인 정약용의 가르침에 따라 정약전의 『자산어보』를 보완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sup>32)</sup> 결국 오늘날 전해지는 『자산어보』는 정약전의 관찰과 조사내용 등을 기록한 원문에 이청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완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33)</sup>

## (2) 자산어보 성격

1808년(순조 8)경 왕명에 의해 호조판서 徐榮輔와 부제학 沈象奎가 중심이 되어 편찬한 『萬機要覽』 財用篇 各貢 宣惠廳五十七貢에 언급된 貢物 중 魚類는 민물고기인 은어[銀口魚]와 쏘가리[錦鱗魚]를 포함하여 17종, 介類 6종, 海藻類 5종, 雜類 1종으로 총 29종의 품목이 올라있다.

이를 『자산어보』 분류 체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4)</sup>

- 鱗類(13) : 대구[大口魚] 송어[秀魚] 조기[石首魚] 참조기[黃石首魚] 조기[石首魚] 누치[訥魚] 웅어[葦魚] 준치[眞魚] 뱀어[白魚] 청어[靑魚] 준치[眞魚] 밴댕이[蘇魚] 민어(民魚)
- 無鱗類(2) : 오징어[烏賊魚] 낙지[落蹄]
- 介類(6) : 게[蟹] 게[靑蟹] 새우[白蝦] 소라(小螺) 합(蛤) 죽합(竹蛤)

32) 허태용, 앞의 책, 246쪽.

33) 이태원, 『현산어보를 찾아서』 2, 청어람미디어, 2002, 302쪽.

34) 中脯·生鮮·卵醢 등 원재료가 되는 어종을 알 수 없는 품목과 민물산 어류(은어, 쏘가리)와 水獺은 제외하였다.

- 雜類(5) : 미역[藷] 감태(甘苔) 황각(黃角) 전호(前胡) 해홍채(海紅菜)

1708년(숙종 34) 이후 전국적으로 대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貢人들에 의해 중앙의 해당 관서에 납품되던 공물 중, 당시 수요를 요하던 어류와 해조류의 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 『萬機要覽』 財用篇 供上의 어류와 해조류 또한 이와 비슷한 품목이 진상되었다.<sup>35)</sup>

『만기요람』은 국가통치의 기본이 되는 財用과 軍政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국왕으로 하여금 국정에 소홀함이 없기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sup>36)</sup> 재용편에 한정하여 서술하자면, 『만기요람』은 당시 국가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현실적 파악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현실문제에 대한 직시라는 관점에서 당시 실학적 사고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만기요람』은 爲政者의 시각에서 정리한 자료이다. 곧, 군왕인 자신과 관료들의 利用과 厚生이라는 측면에서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관찬 읍지 서술동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자산어보 저술과 비슷한 시기인 1815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羅州牧邑誌』<sup>37)</sup>의 土産條에 기록된 어류와 해조류는 鰓·秀魚·銀口魚(今無)·烏賊魚·絡蹄·石花·葦魚·白魚·海衣·黃角·甘苔·藷 등 12종에 그치고 있다. 이 중 鰓을 제외한 土産이 모두 당시 貢人들에 의해 중앙의 관청에 납품되던 貢物이거나 궁궐에 進上되던 물품에 속한다.<sup>38)</sup> 이는 『동국여지승

35) 『萬機要覽』 財用篇 供上에는 대전 중궁전 왕비대전 혜경궁에 逐日供上·逐朔供上·年例 등의 명분으로 올려지는 진상품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 전에 소용되는 품목이 때와 절기에 따라 차등 분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류와 해조류의 경우 품목이 선혜청 57공의 품목과 대동소이하다.

36) 손용택, 「『萬機要覽』 “財用篇”의 지리적 해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2009.

37)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章閣資料叢書 地理志篇 全羅道邑誌 五』, 2003.

람』에서처럼 관찬읍지 편찬에 있어 土産의 기록은 土貢의 파악이 주된 목적임을 입증한다 하겠다. 이러한 읍지 편찬의 의도는 1871년에 제작된 『羅州牧輿地勝覽』과 1895년의 『羅州牧邑誌』, 1899년의 『羅州牧輿地勝覽』에 기재된 나주목의 어류와 해조류는 증보된 내용 없이 모두 1815년 읍지의 기록을 반복 답습하는 경향을 보인다.<sup>39)</sup>

위의 『만기요람』이나 나주목 읍지류에 비해 『자산어보』에 정리되어 있는 어종은 총 226종에 달한다. 그러면서 각 생물의 크기, 모양, 빛깔, 맛 등 세밀한 관찰과 철저한 고증에 의해 체계적으로 저술하였다. 조사 정리된 수와 서술내용이 백과사전식 기술의 전형으로 읍지류에서 이름만 나열하는 것과는 확연히 비교가 된다. 결국 서문의 저술동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산어보』 저술의 궁극적 목적은 治病과 利用, 理財 등 일반백성들의 삶에 유용하게 쓰이기를 기대해서이다. 따라서 정약전은 어류를 비롯한 해양생물을 소개함에 있어서 외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생물의 내부형태와 의학적 효용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기술하기도 했다.

나주 가까운 고을에 사는 사람들은 즐겨 썩힌 홍어를 먹는데 지방에 따라 기호가 다르다. 배에 복결병이 있는 사람은 썩힌 홍어로 국을 끓여먹으면 더러운 것이 제거된다. 이 국은 또 술기운을 없애 주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뱀은 홍어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 비린 물을 버린 곳에는 뱀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대체로 뱀에 물린 데에는 홍어의 껍질을 붙이면 잘 낫는다.<sup>40)</sup>

38) 海衣인 경우는 오직 진상에만 올라있는 품목으로, 대전의 逐日供上과 중궁전·왕비대전·혜경궁의 素膳으로 진상되던 품목이다(『만기요람』 재용편 참조).

39) 다만 1895년의 읍지에는 鰻과 銀口魚, 籠, 海衣가 빠져있다. 전후 읍지의 기록으로 보아 1895년 편찬 당시의 누락으로 보인다.

40) 『茲山魚譜』 卷2 無鱗類, 鱓魚 : …羅州近邑之人 好食其鱓者 嗜好之不全也 胸腹有疔宿疾者 取鱓者之鱓者 作羹飽之 能驅下穢惡 又最能安酒氣 又蛇忌鱓魚 故其腥水所棄之處 蛇不敢近 凡蛇咬處 傳其皮 良效

위의 기술에서 보듯이 治病과 利用은 그가 본서를 저술한 동기의 하나이다. 정약전은 『자산어보』를 통해 사람의 병 치료와 현실에서의 다채로운 활용, 그리고 경제적 가치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한편, 『자산어보』는 철저한 관찰과 고증을 바탕으로 저술되었다. 張昌大 등 현지인을 통한 철저한 고증과 함께 의학, 사전, 문학, 경서, 역사, 박물학류 등을 망라하는 104종<sup>41)</sup>에 이르는 고문헌을 통한 고증방법은 문헌학적인 考證의 正確을 존중하는 과학적, 객관주의적 학문 태도를 견지한다. 그리고 자산어보는 동시에 중국의 문헌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 더하여 비판하여 주체적으로 정리하는 서술태도를 보여준다.

무릇 이(중국문헌)는 모두 가자미의 형태를 보지 못하고 상상만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가자미는 분명 한 마리에 눈이 둘 있고, 명백히 홀로 움직인다. 아래가 배이고 위가 등인데 홀로 완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 서로 아우러져 가는 것은 아니다.<sup>42)</sup>

결론적으로 자산어보는 바다생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實事求是를 연구방법으로 견지하며, 利用厚生을 목적으로 하여 철저한 관찰과 현지인과 옛 서적 등의 고증을 통해 저술된 19세기 어류백과사전<sup>43)</sup>으로 당시 이용후생적인 실학사상이 어류의 조사 연구에 반영된 구체적인 저술이다. 이런 점에서 『자산어보』는 당시 유행하던 사회적 풍조로서의 실학의 학풍을 계승하는 저술

41) 정명헌,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담긴 해양 박물학의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8쪽; 허태용, 앞의 책, 244쪽에서 재인용.

42) 『茲山魚譜』卷1 鱗類, 鰈魚. “凡此皆未見鰈形 以意言之也 今鰈魚 明一箇有兩目 明一箇獨行 下服上背 獨成完體 非相並而行也”

43) 최초의 어류백과사전은 金鑣(1766~1821)의 『牛海異魚譜』로 어류 53항목, 갑각류 8항목, 패류 11항목 등 모두 72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 조선시대 어류 관련 저술은 허태용의 앞의 책 237-238쪽과 238쪽의 주 50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면서 또한 15세기 이래 육지중심의 경제관념으로 소외되던 바다가 19세기에 와서 실학자들에 의해 利用과 厚生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저술이라는 점에 의의가 크다 하겠다.

#### 4. 맺음말

이상 『동국여지승람』 제주목 해양생물과 『자산어보』 해양생물을 고찰하여 보았다. 이를 통한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국여지승람』과 『자산어보』는 둘 다 민족주의적 사관에 의해 쓰여진 저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동국여지승람』이 『대명일통지』의 체제를 모방하였다고는 하지만 이전의 지리지에 비해 지방의 인물과 제영에 대한 강조는 결국 그 지방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한 것이고, 나아가 중국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문화민족임을 자부하는 것이다. 『자산어보』 역시 고증에 있어 『본초강목』 등의 술한 중국문헌에 고증을 의탁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체적 입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둘째, 백성[民]에 대한 위정자[牧]의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동국여지승람』은 국가체제의 안정으로 호구 전결 군정 등의 부분이 이전 『세종실록』 지리지에 비해 소홀한 반면 인물 제영 등의 비중이 커졌는데 이는 군신·부부·부자 삼강의 윤리 확립을 통해 왕도정치를 지향함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제주목 토산조의 경우 편찬의 시작과 증보의 끝에 변화가 없다는 점은 역으로 공물 이외의 토산에 대한 관심이 적고 결국 백성들의 利用과 厚生에 대한 관심이 덜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자산어보』에서 보이는 정약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의 발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약용의 표현을 빌자면 『동



『국여지승람』의 경우 “民은 牧을 위해 생겨난 것이고”, 자산어보의 경우는 “牧은 民을 위하여 있는 것”으로, 전자는 백성이 수혜의 수단이고, 후자는 수혜의 대상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하겠다.

주제어 : 신증동국여지승람, 바다생물, 자산어보, 실학

■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영진 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2009  
金榮洽 編著, 『濟州史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2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만기요람』 I, 1986  
배우성 외,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4, 휴머니스트, 2006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章閣資料叢書 地理志篇 全羅道邑誌 五』,  
2003.  
손택수, 『바다를 품은 책 자산어보』, 아이세움, 2006.  
李元鎭, 『耽羅志』,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91.  
이태원, 『현산어보를 찾아서』 1, 청어람미디어, 2002  
이태원, 『현산어보를 찾아서』 2, 청어람미디어, 2002  
정두희, 「천주교 신앙과 유배의 삶, 다산의 형 정약전」, 『역사비평』 11호, 역사비평사, 1990  
鄭文基 옮김, 『茲山魚譜: 흑산도의 물고기들』, 지식산업사, 2002

2. 논문

- 徐仁源, 「『東國輿地勝覽』에 반영된 자주의식-訥齋 梁誠之의 사상과 관련하여-」, 『역사민속학』 제2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9  
서종태, 「巽庵 丁若銓의 實學思想」, 『東亞研究』, 西江大學校東亞研究所, 1992  
손용택, 「『萬機要覽』 “財用篇”의 지리적 해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2009  
허태용, 「丁若銓의 茲山魚譜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제4호, 한국인물사연구회, 2005

### 3. 웹사이트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與猶堂全書』)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新增東國輿地勝覽』)

〈ABSTRACT〉

Marine life of Jeju-mok in 『*Sinjeung*  
*Donggugyeojiseungram*(a geography book)』 and  
『*Jasaneobo*(the first book of Korean marine life)』

Kim, Dong-Jeon / Baek, Jong-Jin

『*Sinjeung Donggugyeojiseungram*(revised version of the *Donggugyeojiseungram*(a geography book))』 was published in 1481(12th year of the King Seongjong) and revised twice in 1530(25th year of the King Jungjong). It includes information about fish, shellfish and seaweeds by provinces: about 51 kinds of fish, 16 shellfish, 13 seaweeds and 20 others.

The revised book didn't add new products in Jeju part. It shows that the original version was only about Jeju's marine specialties and tributes to the king.

*Donggugyeojiseungram* of the government compilation was published to know tributes by regions. Fish was included in the book because it was a tribute to the king. The preface of the book says that specialty replaces the revenue tax. Also, it proves that fishery industry supplemented farming for livelihood.

*Jasaneobo*(the first book of Korean marine life) written by Jeong yak jeon in 1814(14th year of King Sunjo) was based on positivism and pragmatism. It is regarded as the oldest encyclopedia on fish recorded by through observation, local residents' interview and documentational research.

『*Jasaneobo*』 is comprised of 3 parts. The first part shows 72 species of 20 kinds of scaled fish. The second part shows 43 species of 19 kinds of non-scaled fish and 66 species of 12 kinds of crustaceans like shrimps and crabs. The third part shows 45 species of 4 other kinds like water birds and seaweeds.

From 16th century, Neo-Confucianism, state relig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became ideal and notional study like *Insim dosimron* study, *Sadanchil jeongron* study and *Inmulseong dongiron* study. It didn't look after the public. Under this circumstance, 『*Jasaneobo*』 succeeded *Shilbak*(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Until 15th century, seas had been undervalued. But from 19th century, seas were regarded as important for public welfare by *Shilbak* scholars.

Key words : *Sinjeung Donggugyeojiseungram*(a geography book), marine life, *Jasaneobo*(the first book of Korean marine life), *Shilbak*(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